정신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 분석

나수화 · 정은희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나수화 · 정은희. 정신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1호, 64-80.본 연구는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의도를 알아보고, 정신지체 정도별 의사소통의도의 특성 그리고 정신지체 정도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신지체아동 10명의 발화를 비디오 녹화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정신지체아동은 첫째, '대답하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모방하기', '혼잣말', '행동요구', '정보요구하기', '진술하기', '부정하기', '감정 표현하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도 및 의지', 경고하기', '진술하기', '놀리기'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정신지체아동을 사회지수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의사소통의도를 알아 본 결과 '정보요구하기'와 '명료화 요구', '부정하기', '모방하기' 등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 집단은 '대답하기',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 '부정하기' 등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고 하위 집단은 '대답하기', '모방하기', '혼잣말하기' 등을 더 사용하였다. 셋째, 사회지수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정보요구하기', '부정하기', '명료화요구', '경고하기', '농담하기'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정신지체아동의 언어, 화용론적 특성, 의사소통의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문제

아동들은 출생 직후부터 울음이나 웃음 등 사회적 상호작용적인 행동을 보이며, 6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를 부르거나 젖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울음이 아닌 소리내기 등으로 특정 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8 - 10개월 정도가 되면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지고 인사하기라든가 가리키기, 응시하기와 같이 의도적인 발성이나 몸짓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은 성장을 하면서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대화 상황에 알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화용적인 능력도 습득하게 된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화용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Searle, 1969; Sadock, 1974; Keenan, 1974; Garvey, 1975; Wilcox & Webster, 1980) 일반적으로 심리언어학자들은 문법 능력은 10세를 전후로 하여 습득이 되며, 화용 능력의 습득 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Hymes(1997)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정의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를 산출하기 위한 문법 지식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화용 규칙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므로 통사구조상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화용론적 측면의 언어 습득이 지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전병운, 1994).

정신지체아동들은 말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는다. 대부분의 정신지체아동들은 사회적인 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언어의 사회적 사용인 화용 측면에서도 문제를 나타낸다. 또한 정신지체아동은 낮은 지능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전반적인 언어발달장애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데 언어발달 과정은 일반아동과 유사하지만, 기질적 혹은 환경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의 정상속도를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많다(황은경, 2003). 정신지체아동의 화용론적 연구로써 전병운(1994)은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화용능력과 생활연령・사회연령・정신연령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생활연령이나 정신연령보다 사회연령이 화용능력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전자(2000)는 Searle이 제시한 화행의 분류에 기초하여 장애정도별, 평균발화길이별로 비율과 특성을 알아 본 결과, '요구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SQ와 MLU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정신지체아동의 경우에는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에서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 청자가 정신지체아동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래의 메시지를 전달시키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지체아동은 언어에 있어서 발달이 느리고, 판에 박혀 있고, 이해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즉, 언어의 사회적 사용인 화용 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의 화용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정신지체아동이 청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신지체아동의 자발화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의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정신지체정도별 화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의도와 사회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광주시 S특수학교 초등부 학생 중에서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신지체아동 10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아동은 각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선정하였으며, 자폐증이나 뇌성마비 등 다른 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능력의 개인차가 심하고 대상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능 검사도구가 적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김옥기, 1985)를 실시하였다. 정신지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산출된 총점에 따라 '사회연령 환산표'에서 해당하는 사회연령(SA: Social Age)을 구하였고, 정신지체 정도와 의사소통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사회지수(SQ: Social Quotation)를 산출하여 집단을 나누었다. 사회지수는 사회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온 점수에 따라 50이상 상위집단과 49이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 1>에 제시하였다.

<표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 대상	연 령	성 별	SA	SQ		장애등급
A	10세 3개월	여	4.00	65.68		정신지체 2급
B	12세 0개월	남	3.92	65.68		정신지체 3급
C	7세 8개월	남	3.94	63.90	상	정신지체 2급
D	10세 1개월	남	3.86	63.90		정신지체 3급
E	7세 1개월	여	3.25	50		정신지체 2급
F	10세 2개월	남	3.25	42.76		정신지체 1급
G	10세 8개월	남	3.50	41.18		정신지체 2급
H	8세 3개월	여	2.23	37.66	하	정신지체 1급
I	6세 9개월	여	1.73	27		정신지체 2급
J	7세 11개월	남	1.76	24.01		정신지체 1급

2. 검사도구

가. 사회성숙도검사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의 정신지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성숙도검사(김승국・김옥기, 1985)를 사용하였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사회성이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며 정신지체 여부와 그 정도를 판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최중옥・박희찬・김진희, 2002). 검사 문항은 크게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등 적응행동의 표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1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나. 화용기능분석

연구대상 아동의 화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영태(2002)의 “화용 기능 분석표”와 “대화기능 분석표”를 종합하여 의사소통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된 의사소통의도 분석표는 <표 - 2>에 제시하였고 의사소통의도의 분류기준과 예문은 <부록 - 1>과 같다.

<표 - 2> 의사소통의도 분석표

문장 번호	발화 단위	정보 요구	행동 요구	명료화 요구	주의 집중 요구	사물 사건 진술	반복 하기	설명	부정	자기 생각 진술	의도 및 의지	감정 표현	강조 하기	경고 하기	놀리기	농담 하기	대답 하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 하기	모방 하기	기타
1																						
:																						
계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자료는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것이다. 자연스러운 발화 수집을 위하여 학교에서 아동과 친밀한 담임교사 그리고 또래들과의 자유놀이 활동이나 상호작용 시간을 이용하여 1시간씩 5회 녹화하였다.

발화 표본의 크기는 50 - 200개(김영태, 2002)로 범위가 다양하고 일반아동 2세 정도의 경우 30분 정도에 100 - 200개의 발화가 되지만 정신지체아동의 언어는 아동에 따라 언어 능력이 매우 다양하므로 녹화테이프 1시간으로 제한하여 5회분을 종합하여 전사하였다. 녹화 테이프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중지하지 않고 연속으로 보고, 의사소통 행동 분석을 위해 기록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중지시키며 보았다. 발화 분석은 연구자와 대학원에서 언어치료 교육을 전공한 치료교육교사 1인이 실시하였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95 %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사소통의도 분석은, 홍경훈・김영태(2001)가 Dore(1978)의 대화기능 분석표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대화기능 분석표”와 “화용기능 분석표”(홍경훈・김영태, 2001)를 참고하여 의사소통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행동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비상호적인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란 신체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몸짓(gesture), 그리고 발성(vocal) 또는

말(verbal)로 접근(contact)이 일어난 경우, 또는 대화상대자의 의사소통의도가 있은 후 아동이 3초 이내에 응시 또는 반응한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의사소통의도 분석은 21개로 구분한다.

셋째, 의미 없는 상투적인 부르기(calls)는 전체 자료 10 %만 분석에 포함한다.

넷째, 동일한 대상 또는 행위를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칭하는 행동들은 한번만 기록한다.

5. 자료처리

의사소통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녹화를 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발화를 문장별로 나누고 의사소통의도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발화수집을 분석하면서 각 아동들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정신지체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을 알아보고자 SQ에 따라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특성은 비모수검정인 Mann Whitney분석을 하였다. 이때의 백분율은 의사소통의도별로 모든 아동의 발화 백분율의 합을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SQ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모수검정인 Kendall의 순위상관계수 tau-b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은 유의수준 5 % 양측검증을 실시하였다. 위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version 10.1)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발화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의도 분석

자료로 선정된 대상 아동들의 발화를 의사소통 의도별로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 3>과 같다. <표 -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명의 아동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의사소통의도는 '대답하기'이다. 그 다음으로는 '모방하기', '혼잣말',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 '자기생각 진술하기', '부정·감정 표현하기', '명료화요구하기', '인사하기', '설명하기', '부르기', '농담하기', '반복하기', '강조하기', 기타(무응답), '주의집중요구', '의도 및 의지', '경고하기', '사건 사물 진술하기', '놀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의사소통의도가 높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답하기'

'대답하기'는 전체 387발화가 나타났으며 전체 의사소통의도 중 40.4 %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각 아동들에 따라 67.9 %에서 15.8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나타난 아

동들의 발화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교사: 그림속의 이 친구는 무엇을 입고 있지요?

H 아동: 바지(손으로 바지를 가리키며)

2) '모방하기'

대상아동 F의 경우 '모방하기' 부분에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많은 발화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아동의 경우 교사와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동이 교사의 발화를 즉각 모방 했다. '모방하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교사: 무슨 색 사과였지? 빨간 것. 그래 빨간 사과였어.

F 아동: 빠안 것(빨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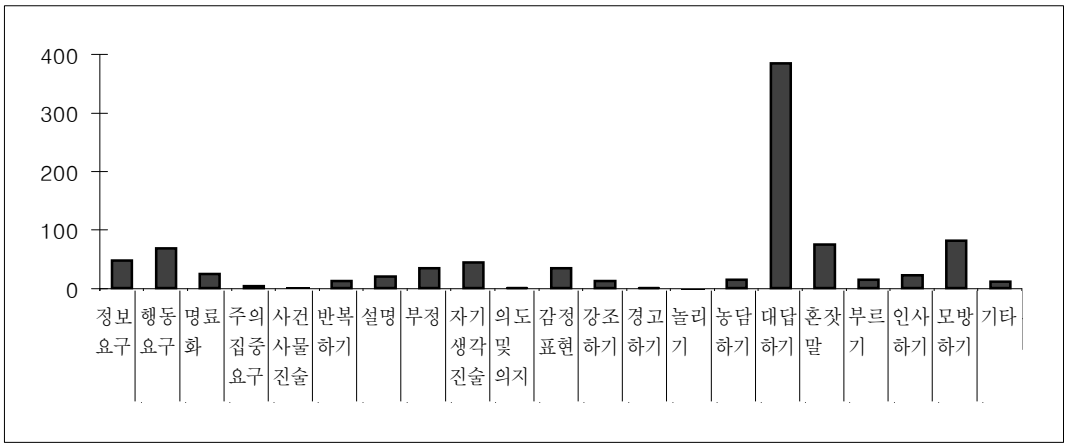
교사: 과일 줄까? 감 주세요.

F 아동: 감 주세요.

<표 - 3> 의사소통의도 빈도와 비율

(단위:%)

구분	정보요구	행동요구	명료화요구	주의집중요구	사건사물진술	반복하기	설명	부정	자기생각진술	의도및의지	감정표현	강조하기	경고하기	놀리기	농담하기	대답하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하기	모방하기	기타
SQ 상위집단	44 (8.09)	57 (10.47)	24 (4.41)	5 (0.92)	0 (0)	2 (0.37)	22 (4.04)	34 (6.25)	45 (8.27)	1 (0.19)	21 (3.86)	11 (2.02)	3 (0.55)	0 (0)	17 (3.13)	165 (30.33)	35 (6.43)	17 (3.13)	16 (2.94)	16 (2.94)	9 (1.65)
SQ 하위집단	6 (1.45)	14 (3.38)	3 (0.72)	1 (0.24)	2 (0.48)	13 (3.14)	1 (0.24)	3 (0.72)	2 (0.48)	2 (0.48)	16 (3.86)	4 (0.96)	0 (0)	0 (0)	0 (0)	222 (53.62)	43 (10.39)	0 (0)	9 (2.17)	68 (16.43)	5 (1.21)
계	50 (5.22)	71 (7.41)	27 (2.82)	6 (0.63)	2 (0.21)	15 (1.57)	23 (2.4)	37 (3.86)	47 (4.91)	3 (0.31)	37 (3.86)	15 (1.57)	3 (0.31)	0 (0)	17 (1.77)	387 (40.4)	78 (8.14)	17 (1.77)	25 (2.61)	84 (8.77)	14 (1.46)



<그림 - 1> 의사소통의도 빈도

위의 발화는 교사가 아동에게 사과가 무슨 색인지 물어 보자 아동이 하얀색이라고 발화를 하였고 교사가 빨간색이라고 바른 표현을 들려주자 바로 아동이 모방을 한 예문이고, 다음 발화는 교사가 질문과 답을 병행하자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냥 교사의 말을 모방 한 예문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방하기'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총 84발화가 나타났다(8.77 %).

3) '혼잣말하기'

대상 아동들에게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나타낸 의도는 '혼잣말하기'로써 78발화로 8.14 %를 보여주었다. 대상아동 D의 경우 혼잣말이 23발화에 13 %비율을 나타내었다. D아동의 자유놀이 시간의 혼잣말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D 아동: 왕들의 침입. 다했다~아(불럭이 자신의 쪽으로 날아옴)
D 아동: 호호호(웃는 시늉)
D 아동: 호빵이 파~악. 파파파팍.

4) '행동요구'

이 부분에 나타난 아동들의 발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1) D 아동: 누나 이거 하나만 맞춰 봐
예 2) A 아동: 노래(노래가 끝나자 다시 테이프를 틀어 달라고 함)

전자의 발화는 D아동의 발화로 누군가가 자신이 물어보면 그것을 말로나 행동으로 맞춰주길 바라는 발화이고 다음 발화는 A아동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자 다시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행동 요구하기'는 71발화(7.41 %)이고 네 번째로 높은 의사소통의도를 보였다.

5) '정보요구'

정보요구는 50발화에 그 비율은 5.22 %로 5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대상아동에게서 나타난 발화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A 아동: 어디 아퍼요?
C 아동: 선생님 뭐야?

앞의 발화는 A아동이 쉬는 시간에 병원 놀이를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봄으로써 정보를 요구하는 발화이다. 후자의 발화는 C아동의 발화로 언어치료시간에 아동이 책에 있는 그림을 짚으며 그려진 그림이 무엇인지 정보를 요구하는 발화이다.

6) '자기생각 진술하기'

'자기생각 진술하기'는 47발화에 4.91 %로 앞의 발화들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예) 아동: 누나 뭘 만들어? 누나! 뭘 만들어? 호빵맨 군대

위의 발화는 D아동의 발화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누나에게 뭘 만드는지 물어보고선 대답을 듣지 않고 "호빵맨 군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이 사람모양의 블록 인형에 호빵맨..등의 이름을 붙여서 놀다가 주위에서 놀고 있는 누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한 것이다.

7) '부정 표현하기'와 '감정표현하기'

'부정 표현하기'는 37발화에 3.86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싫어", "안해", 혹은 고개를 흔들거나 손을 젓는 몸짓을 나타냈으며, 부정발화의 특징은 부연 설명은 거의 없이 부정을 표시하는 짧은 발화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감정표현하기'는 웃기, 찡그리기, 울기 등이다.

8) '명료화 요구'

'명료화 요구'는 27발화에 2.82 %의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대상아동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도 분류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명료화 요구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A 아동: 행정실?

위의 발화는 A아동의 발화로 아동이 간식을 먹고 있는데 교사가 다 먹고 나서 행정실에 심부름을 시키자 아동이 다시 “행정실?” 하고 명확하게 알고자 되물었다.

9) ‘인사하기’

‘인사하기’의 발화 수는 25발화에 2.61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에 있는 정신지체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발화를 수집하였기에 아동들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수업 등에 있어서 인사하기의 발화가 많이 나타났다.

10) ‘설명하기’

현재의 장소에 없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물/상황/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또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발화 수는 23발화에 2.4 %를 나타내고 있다.

예) F 아동: 엄마랑 새끼 새끼 새끼 네 마리
F 아동: 퉤퉤퉤 했어

앞부분의 발화는 엄마와 전에 놀러 갔던 것을 이야기 하면서 엄마가 오리가 몇 마리인지 물어보자 아동이 네 마리라고 말하고 그 네 마리가 어떻게 네 마리인지 엄마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고 후자는 마찬가지로 F아동의 발화인데 과자를 먹다가 사촌 동생과 누나에게도 과자를 나눠주라고 말을 하자 아동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11) ‘부르기’·‘농담하기’

‘부르기’와 ‘농담하기’는 전체에서 17발화(1.77 %)를 나타냈다.

‘부르기’는 아동들이 친구들을 부르거나 혹은 교사를 부르는 발화가 대부분이었다. ‘농담하기’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B 아동: 작은누나 아니어 돼지야. 돼지야. 인자 무조건 돼지야 인자

위의 발화는 엄마와 이야기 하는 도중에 누나를 돼지로 부르고 엄마와 장난을 치는 발화이다.

앞의 항목들과 근소한 차이로 '반복하기'와 '강조하기'는 15발화에 1.57 %을 나타냈으며, '기타'는 아동이 발화 뿐 아니라 몸짓이나 발성이 나타나지 않아 무응답처리 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14번(1.46 %) 나타났다. '주의 집중 요구'는 6발화에 0.63 %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도 및 의지'·'경고하기'는 3발화에 0.31 %, '사건·사물 진술'은 2발화에 0.21 %, '놀리기'는 0 %였다.

2. 정신지체 정도별 화용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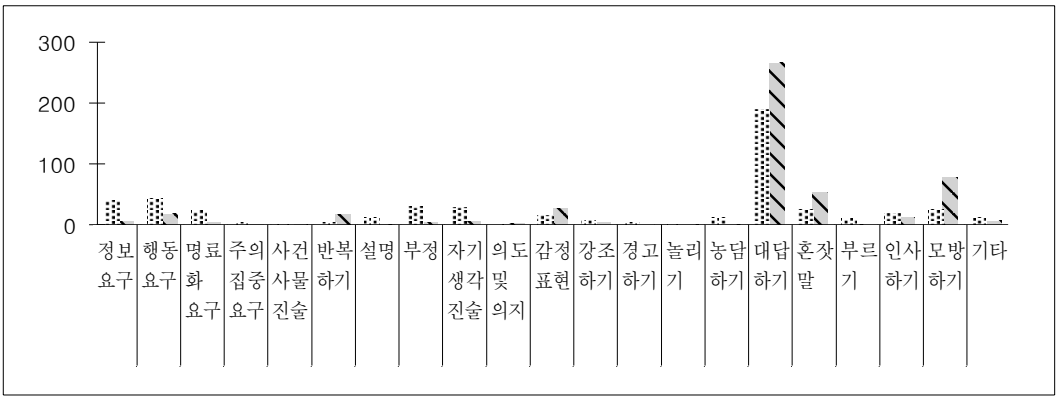
정신지체 정도에 따른 화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김옥기, 1985)를 실시하여 SQ 50이상 집단과 SQ 49이하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표 - 4>와 <그림 - 2>에 제시하였다.

<표 - 4> SQ 상·하위 집단 간 의사소통의도 비교

	정보 요구		행동 요구		명료 요구		주의 집중		사건 사물		반복 하기		설명		부정		자기 생각		의도 의지	
SQ구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Mann Whitney 의 U	2.000		9.000		2.000		7.000		10.000		8.000		9.000		3.500		7.000		10.000	
유의 확률	.026*		.435		.022*		.189		.317		.307		.368		.044*		.219		.513	
비율(%)	40.15	4.95	43	17.3	22.55	3.8	4.55	1.25	0	1.23	2.68	16.4	12.5	0.63	29.05	3.65	28	4.85	0.6	1.83

	감정 표현		강조 하기		경고 하기		놀리기		농담 하기		대답 하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 하기		모방 하기		기타	
SQ 구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Mann Whitney 의 U	11.500		9.000		7.500		12.500		5.000		12.000		10.000		7.500		7.500		1.000		7.500	
유의 확률	.832		.432		.136		1.000		.054		.916		.599		.136		.290		.015(*)		.283	
비율(%)	15.1	27.68	6.68	3.63	2.71	0	0	0	11.75	0	189.6	266.8	24.2	53.75	10.08	0	19.31	12.6	24.4	77.5	12.01	6.03

*$p < .05$



<그림 - 2> SQ 상·하위 집단의 빈도 비교

<표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Q에 따라 정신지체아동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의사소통의도를 살펴본 결과 '정보요구', '명료화요구', '부정하기', '모방하기'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집단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항목은 '정보요구', '명료화요구', '부정하기'이고 하위집단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항목은 '모방하기'였다. 의사소통의도별로 비율을 보았을 때 집단간 유의차는 없었지만 두 집단 모두 '대답하기'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상위집단에서 다음으로 높은 빈도가 나타난 것은 '행동요구하기(43 %)', '정보 요구하기(40.15 %)', '부정하기(29.05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집단의 경우는 '대답하기(266.8 %)', '모방하기(77.5 %)', '혼잣말(53.75 %)'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정신지체 정도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

의사소통의도와 SQ와의 상관관계를 Kendall의 tau-b 상관계수를 실시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이를 의사소통의도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의도와 정신지체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항목은 '정보요구', '부정하기', '명료화요구', '경고하기', '농담하기'이다. '정보요구'는 .714(p <.01), '부정하기'는 .732(p <.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명료화요구'는 .610(p <.05), '경고하기'는 .592(p <.05), '농담하기'는 .560(p <.05)로 SQ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행동요구', '주의집중하기', '사건·사물', '반복하기', '설명', '자기생각', '의도·의지', '감정표현', '강조하기', '놀리기', '대답하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하기', '모방하기', '기타' 등에서는 정신지체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5> SQ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

	SQ	정보 요구	행동 요구	명료 요구	주의 집중	사건 사물	반복 하기	설명	부정	자기 생각	의도 의지
상관 계수	1	.71**	0.28	.61*	0.26	-0.05	-0.08	0.44	.732**	0.37	0
유의 확률	.	0.006	0.287	0.023	0.348	0.861	0.767	0.117	0.006	0.174	1
N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감정 표현	강조 하기	경고 하기	놀리기	농담 하기	대답 하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 하기	모방 하기	기타
상관 계수	-0.02	0.45	.59*	.	.56*	0.21	-0.12	0.41	0.12	-0.48	0.17
유의 확률	0.927	0.097	0.037	.	·0.044	0.41	0.65	0.152	0.647	0.066	0.514
N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p < .05$, **$p <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의도를 알아보고, 정신지체 정도별 의사소통의도의 특성과 정신지체 정도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신지체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화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선행연구결과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아동의 발화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의도를 알아 본 결과 정신지체아동들은 '대답하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모방하기', '혼잣말', '행동요구', '정보요구하기', '진술하기', '부정하기', 감정 표현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명료화 요구하기', '인사하기', '설명하기', '농담하기', '반복하기', '강조하기', '주의집중요구하기' 등은 드물게 사용하며 '의도 및 의지・경고하기', '사건이나 사물 진술하기(0.21 %)', '놀리기(0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고찰해 볼 때 의사소통의도의 하위 항목이 본 연구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8개의 항목으로 연구한 전병운・조유진(2001)의 연구에서는 '행동요구하기'가 여섯 번째로 낮은 수행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빈도를 나타낸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전자(2000)의 연구에서는 8개의 항목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황은경(2003)의 연구에서도 7개의 상위

범주 중 50.31 %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행동요구하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서 언어 교육 시 아동으로 하여금 초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보요구하기'는 전병운・조유진(2001)의 연구에서 8개의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가 나타났고, 황은경(2003)의 연구에서도 요구하기가 4개의 하위 범주 중 '정보요구하기'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여 21개의 항목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전자(2000)의 연구에서는 '자기생각 진술하기'가 22.71 %로 8개의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생각 진술하기'가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로 대상 아동들이 자유놀이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발화를 수집하였기에 자신들이 만든 블록이나 자신들이 상황을 설정해서 놀이를 하는 발화의 내용이 많았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어떠한 일에 자기 생각을 진술하거나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비교적 대화상황에 적절하게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하기'는 전병운・조유진(2001)의 연구에서는 8개의 항목 중 세 번째로 21개의 항목 중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배전자(2000)는 8개의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5.42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황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설명하기'가 34.18 %로 주관적 진술하기의 6개의 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고 나타나 21개의 항목 중에서 10(2.4 %)으로 중빈도를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르기'는 전병운・조유진(2001)과 배전자(2000)의 연구에서 8개의 하위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중빈도를 나타내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황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 항목 중에서 35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황은경(2003)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농담하기'와 '경고하기', '놀리기'는 10명의 대상 아동 중에서 5명의 아동이 1개 이상을 사용한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대상 아동 중 4명의 아동이 1개 이상의 사용을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상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표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의 물음에 대답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모방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신지체아동을 사회지수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알아 본 결과 '정보요구하기'와 '명료화 요구', '부정하기', '모방하기' 등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 집단은 '대답하기',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 '부정하기' 등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고 하위 집단은 '대답하기', '모방하기', '혼잣말하기' 등을 더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SQ가 높은 아동들이 의사소통의도를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SQ가 낮은 아동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주 표현하지 않고 SQ가 높은 아동들에 비해 소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도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대화상황에서 적절한 발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지수와 의사소통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정보요구하기', '부정하기', '명료화요구', '경고하기', '농담하기' 순으로 사회지수의 높고 낮음과 관련하여 상관이 있게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화용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에 관련이 높다는 연구(배전자,

2000; 전병운, 1994; 전병운・조유진, 2001)와 일치하고 있으며 사회지수가 높은 집단은 좀 더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별 지도가 필요할 것이고 사회지수가 낮은 집단은 제한된 의사소통의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발화 수집에 있어서 학교 장면 한 곳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동들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교사의 발화를 따라 말하게 하는 식의 대화가 많아 '대답하기'라든가 '모방하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비록 상호작용이 있는 자유놀이 시간이나 비구조화된 언어치료 장면에서 수집된 발화라 할지라도 아동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가정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발화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대상 아동들의 자발화 녹화 상황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여 아동들의 발화 빈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아동들의 상황과 의사소통상대자의 동질성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신지체아동들의 의사소통의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및 분석의 틀을 제공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승국・김옥기(1985).『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영태(2002).『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배전자(2000). 정신지체아동의 화행 습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공주대학교대학원.

전병운(1994). 정신지체아동의 화용 능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병운・조유진(2001). 정신지체학생의 화행규칙수행에 관한 연구.『언어청각장애연구』, *6(1)*, 53-76.

최중옥・박희찬・김진희(2002).『정신지체아 교육』. 서울: 양서원.

홍경훈・김영태(2001).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언어청각장애연구』, *6(1)*, 17-39.

황은경(2003). 환경의 구조화가 정신지체 아동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Dore, J.(1978). Conditions for the acquisition of speech act. In I. Markov(eds.), The Social Context of Language.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Garvey, C. & Hogan, R.(1973). *Social speech and social interaction: Ego-centrism revisited, child development*, *44*, 562-568.

Garvey, C.(1975). Requests and responses in children's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 41-63.

Hymes, D.(1997).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life. In J. J. Gumperz & D. Hymes (Eds.), *Directions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Keenan, E.(1974). Conversa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 163-183.

Sadock, J.(1974).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Searle, J.(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cox, M. J. & Wesbster, E. J.(1980). Early discourse behavior: An analysis of children's responses to listener feedback. *Child Development, 51*, 1120-1125.

<부록 - 1> 의사소통의도의 분류기준과 예문

의사소통의도	분류기준	예문(참조된 대상, 동작)
정보요구	예/아니요 반응요구, 의문사를 이용한 질문	“사탕이야?”
행동요구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	(자동차를 밀어달라는 의미로)“가”
명료화요구	상대의 명료화 요구 후에 이전발화를 반복하거나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	“뭐라고?”
주의집중요구	상대로부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시도	“여기 봐봐. 나 좀 봐봐”
사건·사물진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물 또는 사건/상황에 대한 진술	“넘어져서 아야해”
반복하기	상대의 선행 의사소통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추가없이 모방하는 행동	어른이 “빨간 모자”라고 했을 때 “모자”라고 한다.
설명	현재의 장소에 없거나,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상황/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또는 이유 설명	“이건 공이야”(뭔가를 그리고 나서)
부정	상대의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로, 단, 의미 없는 대답은 제외함	“싫어”, “안돼”
자기생각 진술	자신의 의견 또는 주장을 표현	“내꺼야”, “먹자”
의도 및 의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하거나 언급	“나도 할 거야”
감정표현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을 표현	“그거 좋아”, “맛있다”
강조하기	상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자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	“내거 공이야 내거”
경고하기	문제를 지적, 위험을 알리거나 또는 조심토록 주의를 주는 말	“조심해”, “위험해”
놀리기	남의 흉을 보거나 놀리는 말	“메롱”, “바보”
농담하기	남을 웃기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나 아들 아니고 딸이지?”(아들인지 알면서 장난치려고)
대답하기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	“몇 살이야?”라고 했을 때 “세 살이야”라고 대답한다.
혼잣말	동문서답, 딴소리를 함	
부르기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말이나 음운패턴	“엄마”라고 부름으로써 엄마를 다가 오게 한다.
인사하기	상대방에게 자신의 도착이나 출발을 알림	“안녕”, “빠이 빠이”
모방하기	상대방의 말을 모방	
기타	무응답	

ABSTRACT

Analyzing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Su-Hwa Na
(Dep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Eun-Hee Jeong
(Dept. of Speci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ability by analyzing the communicative intention of the language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The study objectives were two-fold: to investigate the communicative intention by using self-development analysi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ability depending on mentally retarded condition.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ocial index, and the group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The study subjects were 10 elementary students from a special school in the Gwangju area who were are capable of communicating either linguistically or non-linguistically. To document the children's self-expression, conversations and behaviors of the mentally retarded children were videotaped at school from July to September 2005. Their activities such as playing and interacting with classmates and teachers were simultaneously taped. The children's self-expression was rated according to the modified Hong & Kim's(2001) "Analysis table of communication-ability function" and "Analysis table of conversation function". The children's communicative intentions were analyzed and the correl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isorder condition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entally retarded children tended to prefer answering and imitating someone else's word, but they showed less interest in expressing their intention or will, or in describing an event or figure. This demonstrated the passive self-development of the children. Second, we classified the mentally retarded children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social index and found that the aged children group did not talk except to answer or take a copy.

Key Words: communication intention, language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pragmatic characteristics

▸ 게재 신청일: 2006년 1월 18일
▸ 게재 확정일: 2006년 3월 17일

▸ 나수화(제 1 저자):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nasuhwa@hanmail.net
▸ 정은희(교신저자):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e-mail: eunheej@chosun.ac.kr